

본문: 창세기 32:24~32

제목: 강을 건너는 방법

1. 하나님이 대신 싸우십니다.

본문에서 클라이막스는 하나님과 야곱의 주고 받는 질문과 대답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다”는 야곱에게 이름을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야곱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모르셨을리 없습니다. 어쩌서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물으셨을까요? 성경은 이름을 통해 그 사람의 본질과 삶을 드러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질문은 “너는 누구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의역하자면 ‘사기꾼’입니다.** 진정한 야곱의 인생은 속고 속이는 싸움의 반복이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형 에서를 속여 장자의 권리를 얻어냈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 장자의 축복을 얻어냈습니다. 에서의 살해 위협 때문에 피한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10번을 속아 품삯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라반의 소유를 야곱에게 옮기셨습니다. 라반은 이를 질투해 야곱을 죽이려 했고, 야곱은 라반을 피해 벵엘에서 약속 받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야곱을 심란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에서였습니다. 20년 전의 일이었지만, 에서는 자신을 속인 야곱을 죽이겠다고 선언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런 마음을 아셨는지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시며 야곱을 격려했습니다. 그러나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자신에게 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에서의 마음을 달래줄 선물을 준비하고 압복강으로 향합니다.** 야곱은 형에게 줄 선물, 자신의 모든 소유, 모든 가족을 압복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야곱은 강을 건널 수 없었습니다. 당연합니다. 자칫 죽을 수 있는데 어떻게 건너겠습니까? 야곱은 자신을 지켜줄 하나님의 군대라는 놀라운 광경을 보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계획도 세웠지만 막상 강을 건너려니 그의 기도와 다르게 강을 건너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도 속이려 했지만 결국 실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물쭈물하며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밤새도록 싸우십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누구냐?” 이 질문에 야곱은 무너집니다. 내 삶을 어떻게든 만들어 가려고 속고 속였던,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척하며 하나님을 속이려했던 야곱, 사기꾼, 죄인이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쏟아 내는 야곱에게 축복하십니다. 이름을, 그의 인생을 바꾸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싸우다라는 의미의 ‘싸라’(שָׂרָא)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엘’(אֱל)의 합성어로, 다양하게 해석 할 수 있겠지만, 직역하자면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대입해 보자면, 야곱 대신 하나님께서 에서와 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는 그치지 않습니다. 야곱도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고,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고 답하십니다. 사실, **야곱의 삶은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에서와 다툰 때도, 에서의 살해 위협에도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라반에게 속고 죽음의 위협을 당 할 때도, 지금 압복강을 건너지 못하는 야곱 자신과의 싸움에도 하나님께서 싸우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땅의 이름을 “브니엘”, “하나님을 만났다”고 부릅니다.** 그러니, 이제 강을 건너 에서를 만날 때도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입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야곱이 강을 건너 에서를 만나는 내용입니다. 놀랍게도 야곱을 해하려고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온 에서는 야곱을 끌어 안고 감격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모르는 곳에서 야곱을 위해 싸우셨고, 에서의 마음을 돌이켜 야곱을 지키셨습니다.

2. 우리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나아갈 때, 건너면 죽을 것 같은 압복강을 수 없이 만납니다. 이 강을 건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셨는지 아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인줄로 알아 어떻게든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아등바등 싸우며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사실 우리 대신 하나님이 싸우셨고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대신 싸우심을 발견 할 때 인생의 압복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이름은 무엇이나?” 이 질문을 날마다 마음에 세기며 인생의 압복강을 담대히 건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설교 한문장 요약

“나를 대신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인생의 압복강을 건너자!”

- 참고 문헌 및 설교

『창세기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두란노, 목회와신학 편집팀 엮음

『WBC 창세기2』 솔로몬, 고든 웬함 지음

『엑스포지멘터리 창세기』 이엠, 송병현 지음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읽는 모세오경』 복있는 사람, 김희권 지음

본문: 창세기 41:25~38

제목: 멸망하는 세상에서

1. 멸망을 아는 사람, 요셉

하나님께서서는 애굽 땅을 덮칠 재앙을 꿈을 통해 바로에게 보이셨습니다. 바로 또한 이것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지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지혜자들을 불러 꿈을 해석하라 했지만 아무도 이 꿈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 때 술관원의 추천으로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는 자신의 고민을 요셉에게 털어 놓으면 서도 요셉을 못미더워합니다. 바로의 비웃음 섞인 이야기에 요셉은 대답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리고 요셉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바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가 꾸었던 꿈을 들은 요셉은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 전해들은 해석은 일곱해(완전한)의 큰 풍년 뒤에 일곱해(완전한)의 극심한 흉년으로 이 땅이 기근으로 망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었습니다. 당장은 온 세상을 다 얻을 만큼 번영하고 번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오면 이전의 번영과 번창이 잊혀질 만큼 망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요셉은 이 완전한 흉년과 기근으로 망하게 될 때에 대한 대책까지 이야기합니다.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당대의 최강국이었던 애굽에는 수 많은 명철과 지혜있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감옥에 갇혀 죽어가고 있던 요셉을 총리로 세워 멸망을 대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리고 요셉은 풍년의 기간 동안 흉년을 통한 멸망 대비하고, 애굽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합니다. 창세기 12장 2~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약속대로, 땅의 모든 족속이 요셉을 통해 구원을, 복을 누리게 됩니다.

2. 멸망을 아는 성도의 소명

오늘 말씀 속의 애굽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같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발전하고, 번영하고, 번창하여 지금은 잘 되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 세상의 멸망 할 것을 거듭해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성령께서 비둘기 같이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언 하심으로 멸망의 임박함을 알리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일이며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이뤄질 일입니다. 세계 만민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여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세상의 수 많은 지혜자나 권세자가 아닌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 이것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우리들의 소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딘지 모를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더욱 번영하고 번창하게 될 것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멸망을 예고 하셨고, 이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로와 같은 세상 앞에서 이 세상의 멸망을 대비하는 자들, 입술과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요셉을 통해 애굽과 주변 모든 족속이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신 것처럼,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를 통해 세상이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십니다.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세상 속에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세상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의 통로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한문장 요약

“멸망하는 세상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의 통로가 됩시다.”

- 참고 문헌 및 설교

『창세기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두란노, 묵회와신학 편집팀 엮음

『대한기독교서회 창립 100주년 기념 성서주석1 창세기』 대한기독교서회, 천사무엘 지음

『WBC 창세기2』 솔로몬, 고든 웬함 지음

『엑스포지멘터리 창세기』 이엠, 송병현 지음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읽는 모세오경』 복있는 사람, 김회권 지음

본문: 창세기 45:1~8

제목: 상처보다 더욱 크신 하나님

1. 상처로 보이지 않던 소명

요셉은 이전까지 형제들 앞에서 자신을 통제하고 냉정함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통제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큰 소리로 울며 자신의 정체를 형제들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안심시키며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쏟아 놓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어쩌서 요셉은 형들을 처음 만난 자리가 아닌 지금에 와서야 형들을 안심시키며 이런 신앙적 고백을 하는 것일까요? 이 고백이 터져나온 계기는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베냐민이 아니라 나를 노예로 삼아달라”는 유다의 간구였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마음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10명의 형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시기와 질투를 더욱 크게 만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꿈’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이 일이 계기가 되어 요셉은 형들에게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이 때 유다가 나서서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자고 제안했고, 그렇게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갖은 고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의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져, 형들이 양식을 얻기 위해 요셉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게 됩니다. 바로의 꿈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목도했던 요셉은 자신이 어린 시절 꾸었던 그 꿈을 지금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며, 사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안을 구원하시기 위해 요셉을 팔리게 하셨음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이 처음 찾아왔을 때 자신의 정체와 자신이 이해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형들에게 팔렸던 그 상처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보다 먼저 떠오른 것이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형제, 베냐민이었습니다.

베냐민은 형들이 애굽이 양식을 얻기 위해 왔을 때 예전 요셉이 그러했던 것 처럼 야곱과 함께 있었습니다. 당연히 요셉은 예전 형들이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한 것처럼 베냐민을 시기하고 질투하리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처럼 고생하고 있을 베

냐민을 데려오도록 둘째 형, 시므온을 가두고 형들을 돌려보냅니다. 베냐민이 왔을 때는 자신의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넣어 노예로 삼겠다는 명분으로 형들에게서 베냐민을 구출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앞장서서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유다가 베냐민을 두둔하며 자신을 베냐민 대신 노예로 삼아달라고, 자신이 베냐민을 대속하겠다고 진심을 다해 간구합니다. 지금 요셉 앞에 서 있는 형들은 이전에 알던 형들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눈을 열어 자신을 팔았던 유다를 변화시킨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를 눈 녹듯 녹이셨습니다.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형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상처가 회복되니,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무시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이 곳에 팔리게 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로의 아버지, 그 온 집의 주, 애굽 온 땅의 통치자가 되게 하신 것은 이 때를 위함이었다고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니 자신의 상처입은 마음과 상관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가족을 애굽으로 초청하여 구원하고, 창세기 15:13~14의 성취를 시작하게 됩니다. 큰 상처보다 크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을 던지게 됩니다.

2. 회복된 상처는 자산이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보면 우리는 많은 상처를 입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앞에도 무시하고 이 상처로부터 벗어나려고 갖은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노력들이 상처를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요셉이 상처가 회복된 것은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 노예가 되려 했을때, 대속하려 했을 때 입니다. 우리는 유다의 대속보다 더욱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시려고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못박으며 저주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대속의 사랑을 볼 때만이 상처를 회복 할 수 있습니다. 상처는 그보다 더욱 큰 사랑으로 회복 될 수 있습니다.

상처가 회복된 사람은 이제 그 상처가 자산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요셉에게 총리가 되어 형들을 매일 마주하는 것은 이전에 형들에게 팔렸던 상처가 계속 들춰지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이상 요셉은 그 상처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보았으며,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자산으로 삼았습니다. 비가 오고난 뒤 땅이 더욱 단단해 지듯, 회복된 상처는 소명을 이루는 자산이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얻은 수 많은 상처와 아픔이 하나님의 대속과 사랑으로 회복되어, 상처보다 크신 하나님과 그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설교 한문장 요약

“회복하게 하신 상처로 소명을 이룹시다”

- 참고 문헌 및 설교

『창세기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두란노, 목회와신학 편집팀 엮음

『엑스포지멘터리 창세기』 이엠, 송병현 지음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읽는 모세오경』 복있는 사람, 김회권 지음

본문: 출애굽기 3:1~12

제목: 지금 가라

1.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40년간 이집트의 왕자로 살아오던 모세는 자신의 민족을 위하다 살인자가 되어 도망쳤고, 이제는 장인의 양을 치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다시 40년간 가진 것도, 이룬 것도 없는 모세는 그저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다 죽어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모세

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이 떨기나무에 붙었으나 타지 않는 기이한 광경에 주목하는 모세에게 더 이상 가까이 오질 말 것과 신을 벗을 것을 말씀하시며 자신은 거룩한 신적 존재임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모세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시며, 가까이 할 수 없을 만큼 거룩한 신은 그저 멀리서 지켜보는 방관자가 아닌 한 개인의 인생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언약을 맺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택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으신 그 약속을 지키고자 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노예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들은 애굽 사람들의 지독한 압제와 고통에 방치된 것처럼 보여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고통당하는 그 자리로 ‘내려와서’, 압제와 고통으로부터 ‘건져내고’,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데려가겠다’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던 모세에게 다짜고짜 “지금(нын, 이제) 가라!”로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분명하고 급박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준비 할 시간이나 주변을 정리 할 시간은 필요 없습니다. ‘지금’ 가라 말씀하십니다. 앞서 내려오시어 건져내시고 데려가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금(нын, 이제)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제 모세의 소명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소명을 받은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라고 대답합니다. 무언가 해보려다 실패하고 40년 동안 아무것도 가지지도, 이루지도 못한 모세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대답하십니다. 모세가 누구인지, 그가 얼마나 어떻게 실패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명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함께 지금 하나님을 만난 이곳에서 섬김으로 증명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후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게 합니다.

2.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내가 내려가겠다”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보고 듣고 아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고통과 부르짖음과 근심에 함께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압제와 고통에서 건져내시어 더이상 죄와 사망의 노예가 아니게, 그 권세 아래서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시 하늘로 올리시기 전 모세에게 말씀하시듯,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이 이제는 우리의 소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명은 지체함이 없습니다. 모세에게 “지금 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소명은 어떤 특별한 능력과 기술이 있는 사람, 그래서 성공하고 유능한 사람이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모두에게 “내가 하겠다” 말씀하시며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해 “지금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공하고 능력있는 인생만이 아니라, 실패하고 좌절 가운데 놓여있어 스스로 보잘것 없다고 여겨지는 인생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지금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직접 이뤄내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복음들과 땅 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한문장 요약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어 소명을 따라 복음을 전합시다.”

- 참고 문헌 및 설교

『출애굽기 산책』 솔로몬, 박철현 지음

『현대성서주석 출애굽기』 한국장로교출판사, 테렌스 E. 프레다임 지음

『엑스포지멘터리 출애굽기』 이엠, 송병현 지음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읽는 모세오경』 복있는 사람, 김희권 지음